LOCAL

2025년 9월 3일 수요일

목포 삽진항, 정부예산안 반영 '국가어항 첫발'

기본 설계비 9억…어선 수용 능력 향상·안전사고 예방

배후부지 확보…"관광·해양레저·해상교통안전 등 구축"

목포 삽진항의 기본설계비 9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며 국가어항 신규 지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목포항은 어선 접안시설이 부족해 선박 수용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기상특보 시에는 선박이 8중 이상 겹쳐 접안되고 있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커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정부 예산 반영으로 기본설계를 거쳐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안전사고 예방, 체계적인 항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내항과 북항의 기능 재편도 기대하고 있다. 어선 일부를 삽진항으로 분산 수용해 내항은 여객선·카페리·마리나·친수공간 중심으로, 북항은 소형어선 및 해경 경비함 전용부두로 특화해 항만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 조감도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기본설계 및 국가어항 지정·고시, 공공개발 사업 순으로 진행된다. 1·2단계에 약 968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자되고, 3단계 사업을 통해 추가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삽진항이 조성되면 총 11만6824㎡의 배후부지가 확보돼 어선 계류를 위한 기본시설은 물론, 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야적장, 창고 등 필수 어업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시는 유통·관광·레저·휴게시설까지 유치해 수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인근 대양산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어묵공장, 김 산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낸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삽진항은 2024년 해양수산부 예비대상항 공모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예산 확보로 목포시가 수산업을 넘어 관광·해양레저·해상교통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어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

함평, 안전 먹거리 조성

12일까지 방앗간 위생 점검

함평군은 오는 12일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떡류, 식용유지류, 고춧가루 등을 제조·가공하는 방앗간 31곳을 대상으로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등 위생 관리 실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신고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 관리, 원료·제품 관리, 시설기준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방앗간 한 곳을 '깨끗한 방앗간'으로 선정해 위생 관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군수는 "방앗간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업소로, 청결과 위생 관리가 군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생 관리 모범 업소를 발굴하고, 다른 업소에도 자율 위생 관리 분위기를 확산시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영암몰 '풍요로운 추석할인'

26일까지 최대 10만원 혜택

영암군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에서 '풍요로운 추석할인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소비자들이 한우·무화과·배·멜론·곶감 등 영암 대표 농특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전 상품 20% 할인 쿠폰은 1인당 5장 지급되고, 1장에 구입비 1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최대 1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신선한 청무화과와 홍무화과는 매주 수요일에 추가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판매 업체당 20박스 한정이어서 빠른 구매가 관건이다.

소비자 참여 이벤트로 신규 회원과 추천인에게 각각 5000원을 적립해 주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추가와 댓글·리뷰 이벤트, 당첨자에게 배칩 세트를 주는 달빛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 실속 소포장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농특산물 선물세트도 준비돼 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하맥축제가 전국에서 7만5000여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진 하맥축제, 7만5000명 방문 '초대박'

지역 상권·숙박업 활기… 전국 최고 치맥축제 우뚝

강진 하맥축제가 전국에서 7만5000여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초대박 성공신화를 이어갔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열린 제3회 하맥축제에 7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는 전년 6만7000여명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입장 수익(9700만원)도 전년(8700만원) 대비 12% 증가했다.

관심을 끌었던 맥주 소비는 전년에 모두 소진됐던 전례를 감안, 충분히 준비해 제품 회사별로 일부는 소진됐고 일부는 소량이 남았다.

맥주의 최고 파트너인 치킨류를 포함한 안주 역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높아 재료가 바닥났으며, 지역 상인들은 물론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자생·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전년보다 2000만원 오른 1억4000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강진읍내 상권, 일반 숙박을 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강진을 찾아 사흘 내내 곳곳이 늦은 시간까지 활기를 띠었다.

사흘간 펼쳐진 이번 축제는 공연의 신 이승환, 워터밤 여신 권은비, 싸이버거 등 가수 라인업이 화려하면서도 다이내믹해 관광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다. 수도권, 대학가 공연을 무색하게 할 만큼 뛰어난 공연 연출 역시 보기 드물게 완벽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강진원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소중한 참여, 직원들의 헌신, 축제의 안전을 위해 애쓰신 경찰과 소방, 의료기관, 유관기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3년째에 이른 강진 하맥축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맥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하맥축제는 조선을 서양에 알린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을 브랜드화한 '하멜촌 맥주'를 마케팅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선보인 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전봇대 없는 해남…지중화 사업 속도

북부순환로 전신주 철거…해남교 구간도 착공

해남군이 전봇대 없는 거리로 탈바꿈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문화원 사거리부터 광남빌라, 천변교에 이르는 북부순환로 450m를 구간에 대한 대전선 지중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관로 매설과 도로 포장, 지상케이블 철거를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현재는 전신주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철거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해 전신주와 지상 케이블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태풍·화재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청사 주변 700m와 해남군청~주공1차아파트~서림공원~옛 광주은행사거리~중앙1로(천변교) 구간 양방향 1.8㎞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해 해남읍 주요 시가지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달부터는 중앙2로(옛 광주은행 사거리~해남교·300m)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착공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영광,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전국 2위

영광군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전국 2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저탄소 축산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올해 22농가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4농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0농가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 22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며, 영광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증 농가를 보유하게 됐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제도로,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농가 평균 대비 10% 이상 줄인 농가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는 전용 인증 마크가 부착돼 시중에 유통되며,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시스템을 통해 인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광군이 저탄소 축산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농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